

연애할 때 정말 겁이 없을까?

남성의 연애 심리

많은 남자들이 일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라 하지만 적어도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상대여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렇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앞에서 신중하고, 적잖게 겁을 내는 것을 보게 된다. 남성이 연애에 있어서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첫째,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상대방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성 역시 내가 먼저 접근을 하면 이 남성이 어떤 생각을 할까,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의 거부는 수치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잠재의식의 산물에서 비롯된다. 여성을 거절하는 것은 남성의 체면과는 관계가 없지만 버림받는 것은 남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남성들 사이에 있어서 몇 여성을 사

귀했다는 것은 별 죄책감 없이 자랑해도 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실제로 사랑하고 다니는 남성도 많다. 그러나 몇 여성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뉴스를 보면 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일으키는 사건사고보다 여성에게 버림받은 남성이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많은 것은 이런 남성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을 거부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성도 남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둘째, 남성이 여성에게 소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대부분 가정을 이루는데 이 시기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뎠거나 한참 일에 몰두할 시기이다.

요즈음은 사실 많이 변화되고 있어 일은 일, 연애는 연애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남성 본연의 속성인 독립성, 경쟁성, 지배성, 물질지향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으로 남성은 자기만의 성(城)을 굳건히 만들어 그 속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꿈꾸며 쉬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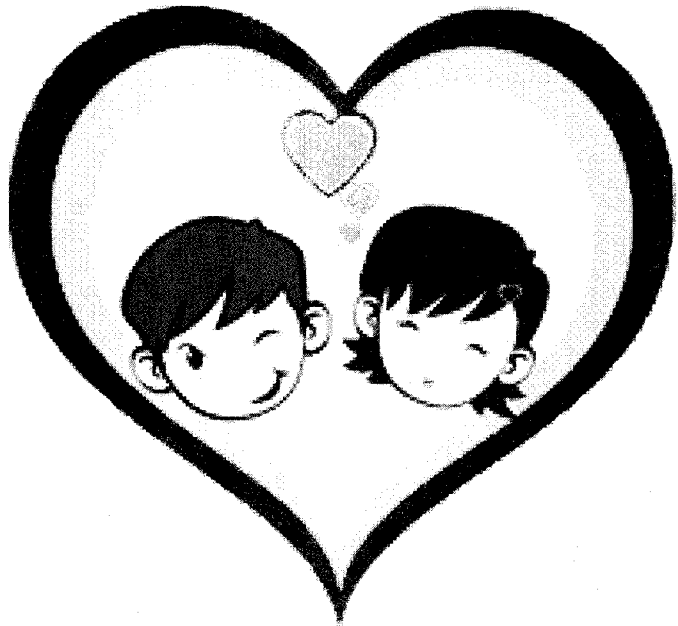
어지간히 여유가 있는 남성이 아니고는 직장에서 항상 여유롭고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경우가 드문 것은 바로 남성의 속성에게 이러한 책임감이 자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일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고 묻는 질문이 어리석은 것은 마치 아이에게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를 묻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셋째, 남성이 여성에게 소극적인 이유는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때문이다.

맹목적이고 열성적인 10대나 20대가



지의 사랑인 경우에는 별개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찬 상태에서 만나는 여성과의 사랑에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제도 속성상 여성의 경우 무의식중에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으로 외부환경에 길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경우에는 시집오는 즉, 상대방 여성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가장장적인 사고속에서 남성의 현실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